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영남일보

박진관 기자



2021년 5월이면 입사 30주년이다. 30년간의 기자생활을 돌아해보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오고 길은 열려 있기 마련이다.

1991년 사진기자로 입사해 산과 강, 아스팔트를 누비며 참으로 많이 돌아다녔다. 그런 가운데, 2004년 봄은 특별한 해였다. 그해를 기점으로 맘속에 품고 있었던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 취재에 대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북방을 향한 '생각의 나침반'은 어떤 현실로 진행됐을까.

2004년 2사회부(현 경북부) 기획취재차 사진기자로 중국 만주지역을 처음 밟게 됐다. 주제는 '중국 속 경상도 마을'이었다. 이 기획취재는 경북도의 후원으로 해외지역 대구경북 동포를 발굴해 보도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영남일보는 지금까지 경북도와 함께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해외 동포의 이주사와 삶 등을 취재해오고 있다. 취재결과를 단행본으로 묶어 나온

것만 해도 10권이 넘는다.

2004년 당시 나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 아는 것이라곤 ‘니하오’와 ‘씨에씨에’밖에 없었다. 2000년 중국 상하이, 항저우, 쑤저우, 난징, 우시 등 중국 중남부지역을 처음 보고 앞으로 ‘중국어란 나라가 대단히 재미있을 것 같다. 기회가 되면 또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뿐 35일간의 장기 해외취재는 입사 후 처음이었다.

그해 4월 베이징을 거쳐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네이멍구자치구에 있는 약 22곳의 중국 속 경상도 마을을 답사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도 이때 처음 들렀다. 일정을 빼 백두산과 집안 고구려 유적지도 방문했다.

나는 사진기자로서 그곳 마을을 단순히 ‘찍어서 남긴다’는 의미를 넘어 중국에서 점차 소멸돼가는 조선족 동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동포들의 풍습과 문화를 후대에 전하는 한편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창한 목적을 갖고 취재에 임했다. 22개 마을은 각각 저마다의 역사와 스토리를 갖고 있었다. 부락

의 모습과 자연환경, 토지 이용실태, 주거형태, 학교와 유치원, 노인독보실, 등민속문화 음식, 복식, 여가활동, 유물, 유적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글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사진이 더욱 중요하다.

조선족 경상도 마을은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전 동북3성과 네이멍구자치구의 농촌에 있던 한반도 영남지역 출신들의 집단부락을 일컫는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원적, 즉 한반도의 출신지역에 따라 크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마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함경도 출신이, 랴오닝성 일대는 평안도 출신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일대는 함경도를 비롯한 경상, 전라, 충청 등지의 한반도 남부지역 출신이 모여 살고 있다. 당시만 해도 조선족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으나 탈농경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체성이 무너질 조짐이 보였다. 더욱이 코리안드림의 여파로 젊은 층이 빠져나가면서 마을이 붕괴되고 있는 곳도 많았다.

조선족 동포의 이주는 19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처음엔 한말의



내몽골 흥안맹쨌라특기현초려진선광 조선소학교 5학년 학생 4명의 수업 사진

병과 독립군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면서 그 후손이 터를 잡았으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만주지역을 개척하기 위한 강제이주정책으로 고국을 등진 동포들도 많았다.

그 이전 17세기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청나라에 포로로 잡힌 조선인들이 박씨 성을 이어오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박가촌’과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조선헌병 대장이었던 이여송 장군의 5대조

인 이영이 고려 말에 중국으로 이주해 부락을 이룬 성주이씨 마을 ‘소둔촌’도 찾을 수 있었다.

경상도 이주민들이 중국으로 이주한 경로는 신의주를 거쳐 랴오닝성 선양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이용한 경로, 지린성 지안을 거쳐 유하, 매하구, 창춘수이탄 등을 거쳐 헤이룽장성 오상, 상지, 하얼빈으로 가는 경로, 두만강 투먼시를 거쳐 무단장으로 가거나 지린시를



거쳐 헤이룽장성으로 가는 경로 등 3가지 루트가 있었다. 여튼 중국과의 국경을 거꾸로 접으면 한반도의 원적지별 조선족 분포와 대개 겹친다. 이렇듯 귀중했던 사진취재 결과를 모아 '중국 속 경상도 마을'을 테마로 개인사진전을 열었다. 또 당시 사진학과 대학원을 다녔는데, 이를 주제로 논문을 써 석사학위를 받게 됐다.

중국과의 인연은 계속해 이어졌다.

이듬해 2005년 한국기자협회 이상기 회장이 연변과학기술대 김진경 총장과 진행했던 '중국 만주지역 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5년 기수는 3기였는데, 동아일보 구자룡

기자(현 논설위원), 문화일보 이정세 기자(현 미디어사업부장), 대전일보 김재철 기자(현 편집국장), KBS 김민성 기자(현 이사회 전문위원) 등 5명이 선정됐다.

5명은 당시 30대 중후반~40대 초반이었다. 2006년 2월까지 1년간 연변과학기술대에서 연수를 하며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을 연구했다. 다들 흰술(중국 고량주)을 좋아해 처리한(?) 술병만큼이나 우정도 깊어졌다. 함께 백두산 천지를 등정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을 오가며 통일을 염원했다. 5명은 지금도 '연변나그네'라는 카톡방을 만들어 교류하고 있다.



백두산 서벽 새벽 풍경

백두산 서파 정상 일출 기자단의 능글픈 모습



나는 2004년 경상도 마을 취재 경험을 살려 영남일보 홈페이지에 기자카페를 개설한 뒤 1주일에 1번 연변을 비롯한 북방에 살고 있는 동포의 삶과 뿌리를 기록해 포스팅했다. 또 고구려, 발해의 옛 영토였던 연수지역을 탐사하면서 유적과 유물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밖에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이 지역을 답사해 글을 썼다. 러시아 연해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연해주에 갔다가 러시아로 간 동포들의 삶도 채록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의 도전, 중국의 현실과 민주주의, 소수민족 등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가능한 한 구석구석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닌 결과물로 '신간도견문록'이란 생애 첫 단행본을 내게 됐다. 2006년 2월 귀국한 뒤 이 모든 사진 결과물을 모아 '발해아리랑'을 주제로 두 번째 개인사진전도 했다.

2006년에는 중국의 역사공정, 즉 동북공정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다. 사진기자였지만 2년간의 북방취재와 연수



경험을 살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글과 사진으로 중국의 야욕과 허구성을 밝혀내 영남일보 1면을 여러 차례 장식했다.

2007년에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안동지역 독립운동가 후손 30여 명과 함께 당신 선조들의 독립운동 터전을 약 1주일간 답사하게 된 것이다. ‘안동에서 하얼빈까지’를 주제로 영남일보에 취재 결과를 연재했다. 또 연해주에 갈 기회가 있어 이 지역을 탐방했다.

이후로도 매년 1회 이상 중국을 방문했다. 특히 연수를 했던 연변과학기술대학과의 인연이 계속해 이어졌다. 대구지역 기관 및 단체와 연결해 조선문독서사(도서관)에 동화책 수천 권을 보내고 이동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사진을 팔아 성금 264만원을 보냈다. 글과 사진으로 동북공정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이 희망이란 것을 깨닫고 이들을 지원했다.

2012년 20년간의 사진기자 생활을 마감하고 펜 기자로 전환했다. 글과 사진은 상호보완재라고 생각한다.

서로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사실을 사실답게 증명하는 게 사진이다. 북방에 대한 ‘생각의 나침반’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의 동참과 동행으로 이어졌다.

2015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라는 대구지역 사회단체에 입회한 뒤 ‘박진관 기자와 함께하는 만주기행’이란 타이틀로 회원들을 모아 여름방학 기간 동북3성지역의 항일 및 고구려 발해 유적지를 탐방했다. 연변대에서 학술대회도 열고 나름 발표도 했다. 또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지역을 다시 찾아 워크숍도 열었다.

재작년에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찾아 민족의 시원을 찾아보았다. 또 한말 의병장 왕산 허위의 손자 등을 만나 취재하면서 북방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다. 그 결과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중앙아시아 편’의 공저자가 됐다.

지난해엔 임시정부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간 대구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이들의 생애와 삶을 연구했다. 정창현 평



화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국기자협회가 진행한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따라’ 프로그램에도 현직기자 20여 명과 함께 참가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가족사와 지역사, 한국사와 연계된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지난해는 강연과 집필 등으로 바쁜 한 해였다. 6월10일이면 지역의 학자 등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독립운동사’ 공동발간에 참여해 또 한 권의 책이 나온

다. 나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간 대구경북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과 생애를 맡았다.

북방에 대한 ‘생각의 나침반’은 이후로도 진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열린다. 📍